

# 김사량의 소설에 나타나는 ‘빛과 어둠’

- 『빛 속으로』를 중심으로-

김 보 애\*

(e-mail : sumile01@hanmail.net)

##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시모후리(霜降)의 혼혈, 야마다 하루오의 ‘어둠’ |
| 2. 『빛 속으로』의 시대적 배경     | 5. ‘빛’ 속으로-화해와 수용              |
| 3. 굴절되는 자화상 ‘나는 누구인가.’ | 6. 나가기                         |

키워드 : 分裂(division), ハーフ・ブラッド(half-blood), アイデンティティー(Identity), 光(light), 闇(darkness)

## 1. 들어가기

1939년 『문예수도』에 발표된 김사량의 『빛 속으로(光の中に)』는 식민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과 민족적 정체성을 다룬 소설이다. 또한 『빛 속으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조선인 유학생인 ‘나’와 혼혈인 야마다 하루오(山田春雄)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을 통해 김사량이 자신의 식민지 현실의 어둠에서 ‘빛’을 추구해가는 꿈을 그린 소설이기도 하다. 『빛 속으로』는 이듬해인 1940년 『문예춘추(文藝春秋)』에 재 수록되고 아쿠타가와상(芥川賞) 후보에 올라 김사량이 일약 일본 문단에서 조명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이소가이 지로(磯貝治良)는 김사량을 “재일조선인 일본어 작가의 원점, 시원(始原)의 빛으로 표현하며 김사량의 문학적 저항은 ‘조선적인 것’의 한없는 농밀한 형상화이며,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소리를 죽인 고발”이라고 말한다.<sup>1)</sup> 재일조선인 문학의 시원, 곧 재일 조선어 문학자의 선구자로

\* 건국대학교 일본문화·언어학과 박사과정 수료.

1) 磯貝治良(1978) 「始原の光(上)」 『新日本文学』, 新日本文学会, p.80.

“金史良の文学的抵抗は‘朝鮮的なもの’のあくことなき濃密な形象化にある。そして、その‘朝鮮的なもの’の形象

자리 매김 되고 있는 김사량을 논함에 있어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민족적’이라는 말이다. “민족은 자신의 언어를 가진 자신의 국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sup>2)</sup>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1930년대의 식민지 조선은 창씨개명으로 자신의 성씨, 곧 자신의 국가와 가문, 언어까지 말살당하여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보기 어려운 시기이다. 감시와 검열 하에 조선작가들은 그 문학적 소재와 자율성이 박탈되고 조선어로 글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사량의 이중 언어 글쓰기는 해방 이후 ‘협력이나 저항이나’의 문제의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날 그는 ‘우회적 글쓰기’로 피식민지 조선의 어둡고 비참한 암흑기를 소설을 통해 그려냄으로써 식민지 지배의 실상을 폭로한 저항 작가로 인정받고 있다.<sup>3)</sup>

작가로서의 김사량의 활동은 1939년 『문예수도』의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당시 그는 『조선일보』 기자로 경성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장편 역사소설 『낙조』(『조광』 1940,2-1941,1)를 발표하고 곧 『빛 속으로』를 완성한다. 김사량은 경성의 온돌방에서 며칠 동안 무언가에 이끌려 단숨에 이 소설을 썼다고 술회하고 있다.

(1a) 나는 『빛 속으로』를 써서 단숨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때마침 대학을 졸업한 봄, 경성에 머물면서 하숙의 작은 온돌방에서 묘하게 긴장된 흥분 속에 단숨에 써버렸다.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에 쫓겨나가듯 써나갔다. 그 치려야 그칠 수 없는 기분으로 쫓기듯 써나간 소설이지만.<sup>4)</sup>

동경제대 재학 당시 그는 『짐(荷)』(1936)과 『토성랑(土城廊)』(1936)을 『제방(堤防)』에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두 작품이 민족의 일제하의 압정에 시달리는 민족의 애환과 고통을 써나간 것에 비해 『빛 속으로』는 한 개

化によって逆照射される。日本の植民地統治にたいする声を沈めた告発にある。いま私が金史良を在日朝鮮人の日本語作家の原点、あるいは始原の光として取りあげるのは、その抵抗のゆえである。”

2) 베네딕트 앤더슨·윤향숙 역(2002)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p.99, 재인용.

폰 헤르더(Johann Gottfried Herder 1744-1803)는 18세기 말경에 “민족은 자신의 언어를 가진 자신의 국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이다”(Denn Jedes Volk ist Volk(:es hat seine National Bildung wie seine Sprache)라고 하였다.

3) 김재용(2004) 『협력과 저항』, 소명, p.201.

4) 金史良(1973) 『金史良全集 IV 「小説集跋文」』, 河出書房新社, p.67.

“わたしは光の中で書き暫く世間にも知られ屋うになった。丁度大学を卒業した春、成に滞在しながら下宿の小さな温突の部屋で妙にありつめた興奮の中で一気に書き上げた。止むに止まれぬ気持ちに迫られるやうにして書いたものの一つであるが”

인의 정체성의 갈등, 그리고 내선결혼으로 태어난 혼혈아의 분열된 자아의식과 좌위적인 결말에서 다소 부자유스러움이 느껴진다. 아쿠타가와상 후보작인 『빛 속으로』는 언어와 민족이라는 소재선택에 있어 최종 당선작인 사무가와 고타로우(寒川光太郎)의 『밀렵자(密獵者)』(1940)이상으로 문학계에서 화제가 되었다. 식민지 조선의 민족의 차별을 다룬 문제이면서도 일본어로 쓰였다는 것에 대해 김사량은 「조선문화통신(朝鮮文化通信)」에서 이렇게 말한다.

(1b) 일부러 내지어로 쓰는 사람들은 그 당사자에게 절대적인 어떠한 동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조선의 문화나 생활, 감정을 보다 넓은 내지 독자에게 호소하려는 동기, 혹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더 나아가서는 조선 문화를 내지와 동양, 세계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미력하지만 그 중개자라는 수고를 감수하겠다는 동기 등도 그러한 것이라.<sup>5)</sup>

『빛 속으로』는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르면서 일본 문단의 시선을 끌었다. 아쿠타가와상을 심사한 사토 하루오(佐藤春夫)(1892-1964)는 “민족의 비통한 운명을 풍부하게 짜 넣은 작품”이라고 하였고 구메 마사오(久米正雄)(1891-1952)는 “내선인 문제를 다룬 것으로 그 시사하는 바는 국가적 중대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심사평을 볼 때 조선 문학은 그만큼 당시 주목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갑작스러운 조선 문학에 대한 관심은 중일 전쟁을 계기로 전쟁의 노선을 밝기 시작한 일본 제국의 하나의 전략이었다. 즉 천황제 아래 식민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의 정책에서 일본의 지방에 불과했던 로컬칼라의 조선을 ‘붐’화 시키고 문학도 내선문학 건설에의 의지로 그 지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일본 본국의 대중매체에서는 식민지 조선을 탐욕스럽게 소비하려는 강박으로서 ‘조선 붐’(朝鮮ブーム)이라는 새로운 대중적 유행이 막 들끓고 있었다. 그러한 일환의 하나로 조선작가 김사량의 소설이 쓴 『빛 속으로』는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빛 속으로』는 주인공을 식민지 지식인으로

5) 金史良(1973) 『金史良全集Ⅳ「朝鮮文化通信」』 河出書房新社, p.29.

わざわざ内地語で書く人々には絶対的にその当人にある痛切な心的動機なければならぬことを前提すべきだと考えるからである。朝鮮の文化や感情をもっと広い内地の読者へ訴え出るといふ動機、あるいはまた別な意味に伝えたいは朝鮮文化のを内地や世界へ広めるために微力ながらその仲介者の労を取りたいといふ動機等もそれであらう。

내세워 제국 일본에 살면서 환경에 익숙해지며 점점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윤리적 의식뿐만 아니라 조선적인 것을 잃어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고 되찾으려는 작가자신의 정체성의 재인식의 소설<sup>6)</sup>이라는 선행연구의 견해에서 바라보자면 김사량이 『빛 속으로』에서 작가자신의 정체성을 재인식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빛 속으로』가 아쿠타가와 상 수상작 후보작에 올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김사량의 반응은 스스로 민족의 비통한 운명을 제대로 표현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반응은 자신감에 차 의도적으로 민족의 비통한 운명을 썼다가 보다는 뭔가 주눅 들어 있다는 느낌조차 갖게 한다. 다소 비현실감이 있지만 『태백산맥』에서 나타나는 비장한 민족성은 『빛 속으로』는 그리 나타나지 않는다. ‘나’로 설정된 주인공의 존재는 익명의 재일유학생이며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밝히는 것에도 다소 우유부단하다. 수상작 후보작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는 그런 김사량의 다소 불편한 마음이 적혀 있다. 사토 하루오의 평에 김사량은 자신이 정말 그런 거창한 것을 쓴 것인지에 대해 반문하며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말한다.

(1c)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사토 하루오씨가 말하는 것을 썼을까요? 웬지 자신은 일개 소설가가 아닌 뭔가 큰 엄청난고 시끌벅적한 것에 의해 스프링으로 튕겨나간 듯한 가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 그런 지나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애초 나는 나의 작품이면서도 「빛 속으로」에는 뭔가 개운치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아직도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sup>7)</sup>

김사량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일본의 ‘내선일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이며 조선총독부가 조선 문학계까지 개입하며 한글말살정책을 시

6) 김지영(2013) 「제국과 식민지/일상에서의 혼종」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1집, 한국현대문학회, p.323.

7) 金史良(1973) 『金史良全集IV 「母への手紙」』, 河出書房新社, p.104.

“愛する母上様、私は考えたのです。本当に私は佐藤春夫氏に云われるような事を書いたのであらいかと。何だか自分は一介の小説書きではなく、何か大きな、でつかいものひしめきの中からスプリングをかけられて飛びださせられたやうな胸苦しさを感じたのです。少なくともその瞬間そんな思ひ過ごしさをしたのです。私はもともと自分の作品でありながら「光の中に」にはどうしてもすっきり出来ないものがありました。嘘だ、まだまだ自分は嘘を云ってゐるんだと、書いてゐる時でさえ私は自分に云ったのです。”

작한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인 작가는 식민주의에 협력하거나 저항하거나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피식민지 민족작가로서의 민족에 대한 양심과 문학가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생각하면서 김사량은 당시의 느낌이 개운치 않다고 말한다. 스물다섯 살의 나이에 아쿠타가와상 같은 큰 상의 후보작이 되었다는 것은 김사량 개인으로서는 큰 기쁨이었지만 그만큼 감당해야 할 마음의 부담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서간이나 에세이 글에서 밝힌 자기 고백 역시 스스로도 무언가 불편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한 이 소설은 일본의 시선을 의식한 ‘인간주의’가 다소 희화되고 있다는 비평도 제기되고 있다. 야자키 단(矢崎弾)의 지적이다.

(1d) 김사량의 「빛 속으로」는 테마는 민족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그 표현형식에서는 다분히 일본적 결합에 무의식적으로 영합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예상했던 대로 『문예춘추』 6월호에 실린 『천마』는 작자의 희극적인 성격을 확대시킨 것으로서 『빛 속으로』에서 편린을 보였던 인간주의의 눈이 얼마나 우연한 장난에 지나지 않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sup>8)</sup>

선행연구와 텍스트에서 본고는 다음 몇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 집중 조명하여 분석해보았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열된 식민지 자아, 둘째, 하루오를 통해 보는 자기를 부정하는 혼혈인의 정체성, 셋째, 『빛 속으로』를 쓴 작가 김사량의 개인적 고백, 이상 세 가지의 문제를 안고 텍스트의 분위기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감을 알 수 있었다.

김사량이 ‘빛 속으로’ 라는 제목을 부친 이유는 자신이 어둠속에 있음을 나타낸다. 「소설집 발문(小説集跋文)」에서 이야기하듯, 김사량은 희망과 미래가 없는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도 한줄기 빛을 찾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희구하고 있는 것이다.

(1e) “나의 시선은 아직도 어두운 곳에만 쏠려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8) 안宇植(1972) 『評伝 金史良』, 岩波新書, p.97.

金史良氏の『光の中に』はなるほどテーマは民族の問題を捉えていたが、その表現の形式に多くの日本的な欠陥への無意識な迎合が察せられた。果たして文芸春秋六月号に掲げられた天馬は作者の戯作者的性格を増長させた作品となり、光の中において片鱗をみせた人間主義の目がいかに偶然の戯れに過ぎなかったかを暴露する。

명암 속을 유영하며 긍정과 부정 사이를 누비면서 언제나 어슴푸레한 빛을 구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빛 속으로 어서 나아가고 싶다. 이는 나의 희망이기도 하다. 하지만 빛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어둠속에 웅크린 채 눈동자만을 빛내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sup>9)</sup>

소설의 시작에서 야마다 하루오는 어둠속에 있다. 세틀먼트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나’ 역시 남(南)이 아닌 ‘미나미 센세(南先生)’로 호명되며 어둠 속을 배회한다.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서 태어난 ‘한베(半兵衛)’라 불리는 하루오의 아버지도 조선인인 하루오의 어머니 정순 역시 각각의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그 각각의 인물들이 그려내는 구도 속에서 작품은 어둠에서 조금씩 빛으로 나아간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빛 속으로』의 시대적 배경

1939년 7월 시작된 중일전쟁 중 총독부는 조선인의 ‘황민화’를 최대 정책과 제로 설정하고 ‘황국신민의 서사’ 제정, 조선교육령개정, 육군 지원병제도 실시, 일본어 보급 등의 정책을 잇달아 실시했다. 1938년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 1874-1955)는 내선일체를 제창하고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사용할 것을 강요했다. 조선어는 선택과목으로 밀려났으며 39년 조선 민사령 개정에 의해 조선민족고유의 성명을 폐지하고 일본식 씨명으로 고쳐 40년 8월 10일을 기한으로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8월 10일 씨(氏)설정 신고가 마감되었고 마감 직후 알려진 숫자는 전 호수의 약 70퍼센트였다.<sup>10)</sup> 이후 ‘내선일체론’은 조선을 전시총동원체제로 구축하기 위한 국민정신 총동원의 이데올로기로 전면화 되었다. ‘내선일체’는 일본 국가주의 틀 안에서 조선인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 ‘일본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sup>11)</sup> 일

9) 金史良(1973) 『金史良全集Ⅳ「小説集跋文」』, 河出書房新社, p.67.

“私の目は未だに暗い所にしか注がれていないやうである。だが私の心はいつも明暗の中を泳ぎ、肯定と否定の間を縫いながらいつもほのぼのとした光を求めようと齟齬している。光の中に早く出て行きたい。それはわたしの希望でもある。だが光を拝むために私は或いはまだ闇の中に体をちぢかめて目を光らしてゐねばならないのかもしれない。”

10) 미즈노 나오키·정선태 역(2002) 『창시개명』, 산치림, pp.57-145.

본 내지에 재주하는 조선인은 창시개명 실시 이전부터 일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인이 일본이름을 쓰게 되는 경우는 첫째, 정치적인 이유에서 조선인이라는 것을 감추고자 하는 경우, 둘째, 일본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본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셋째, 일본의 공장, 회사, 노무자 합숙소 등에 고용된 조선인이 일본인 경영자나 감독으로부터 불리기 쉬운 이름을 적당히 붙이는 경우, 이상의 어느 경우든 자진하여 일본의 사회·문화에 동화하기 위해 일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경우는 비자발적으로 일본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sup>12)</sup>

『빛 속으로』의 주인공인 ‘나’는 텍스트의 서두에서 ‘미나미 선생’이라고 호명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성은 남(南)이다. 조선인이지만 일본이름으로 불리면서 자신의 이름을 은폐시키는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자동차 조수 일을 하는 이군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군은 내 안에 있는 위선을 정면으로 지적한 조선인으로 나타난다.

### 3. 굴절되는 자화상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동경 제대생(帝大生)으로 S협회에서 기숙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S협회는 제대생이 중심이 되어 시민교육부, 무료 의료부, 탁아부 등 빈민지대인, 그 지역에서는 신뢰와 친밀감이 높은 인보사업 단체이다. 남(南)씨인 ‘나’는 조선인이지만 협회에서는 ‘미나미’로 통하고 있다. 미나미 센세인 ‘나’는 협회에서도 인기가 있고 그런 호칭에 대해 아이들과 놀기에는 그 편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하며 그다지 거북함을 느끼지 않는다. 협회 안에서 ‘미나미’로 호명되면서 나의 성씨인 ‘남’은 배제된다. 그 배제에 대해 ‘나’는 그다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위선을 부리는 것도 비굴함도 아니라고 자신에게 타이르지만 이미 그것에 대한 불편함은 스스로 의식하고 있다. 게다가 자신이 ‘남선생’이 되면 조선의 아이들에게도 내지의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S협회의 선생으로 있는 한, 나는 차별을 받지 않는다. ‘동경제대’라

11) 천정환 외(2010) 『식민지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성균관대 출판부, p.415.

12) 앞의 책 10) 미즈노 나오키·정선태 역(2002) pp.262-263.

는 특별한 ‘보호 장치’이며 인텔리인 나는 차별을 느낄 만한 빈도가 낮다. 그런 ‘나’는 낮에는 운전 조수로 야간에는 공부를 배우러오는 이군에게 조선어로 호명된다.

(3a) “선생님!” 그것은 조선어였다. 나는 흠칫했다.(중략) “실제로 저는 선생님에게 어느 나라 말로 이야기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조선인입니다” 내 답변은 어쩐지 조금 떨렸다. “어째서 선생님 같은 분조차도 성씨를 숨기려고 하십니까?..왜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눈과 턱뼈, 콧날을 보고 분명히 조선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 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씨 때문에 여러모로 거북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뚤어진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굴하게 행동하고 싶지도 않습니다.<sup>13)</sup>

이군이 “선생님” 하고 조선어로 부르는 순간, 나는 흠칫한다. 뭔가 숨기는 일이 있거나 거짓말을 할 때처럼 나는 지금껏 ‘미나미 센세’라고 불리는 것이 떴떴치 않았던 것이다. 이군이 ‘나’를 조선어로 불렀다는 것에 이 소설의 모든 열쇠가 숨겨있다.<sup>14)</sup> 이군에게 자신이 조선인임을 들키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미나미 선생’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남씨인 ‘나’가 ‘미나미’라는 존재로 존재하는 한 ‘나’의 존재는 없으며 차별도 편견도 없다. 그러나 ‘남(南)’이 되는 순간 나에게서는 차별과 배제라는 원리가 작용한다.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지에서 창시를 해야 할 경우는 학생으로서의 신분보다는 노무자의 신분에서 더 그럴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군은 ‘이(李)’라고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데 비해 동경 제대생이며 협회

13) 金史良(1973) 『金史良全集 I 「光の中に」』, 河出書房新社, pp.13-14.

“先生” それは朝鮮語だった。わたしははっと思った。“私は実際あなたにどちらの言葉で話しかけていいかわかりませんでした。”“勿論私は朝鮮人です。”という自分の答えは心なしかいささか震えを帯びていた。“どうして先生なやうな人でさえ苗字を隠さうとするのです。どうしてか私はそれが聞きたいのです。私は先生の目や換骨や鼻立ちから、きっと朝鮮人であるのに違ひないと思ひました。だがあなたはそんな素振り一つしなかつたやうです。私は自動車の助手をしています。寧ろ私のやうな職場の人々に苗字のことで色々気まずいことが多い筈です。だが私はそんな必要も認めないのです。私はひがみたくもなければ、また卑屈もしたくないのです。”

14) 朴銀姬(2008) 「主体性の追求と挫折—金史良の「光の中に」をめぐって」 『千葉大学人文社会科学研究所』 第17号, 千葉大学大学院人文社会科学研究所, p.318.

의 선생인 ‘나’는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일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텍스트의 서두에서 “내 성씨는 알다시피 ‘남’이라고 읽어야 했지만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이름을 쓰고 있고 그 호명방식에 대해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묵과하고 있다. 그것은 차별을 두려워하는 ‘나’자신의 모습이며 위선에 가까운 것이다. 최현식은 “나는 자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성의 호칭 변경에 ‘위선’과 ‘비굴’이라는 내면으로부터의 굴욕에 맞닥뜨리며 ‘미나미’라는 호칭의 승인은 식민주의에 대한 공모와 타협으로 비칠 수도 있다.”<sup>15)</sup>고 말한다. 결국 ‘나’는 이군에게 처음 자신이 조선인임을 들킨 순간, 자신의 위선과 비굴에 부닥쳐야 할 상황을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선생’이라는 존재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그 순간을 무마시키려고 한다.

(3b) “예컨대 내가 조선사람 이라고 한다면 저런 아이들이 내게 갖는 감정 중에는 애정 이외에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다른 것이 앞선다고 봅니다. 그건 선생으로서도 무엇보다 쓸쓸한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모두가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므로 나도 굳이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나에게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뭐라 변명할 것은 없습니다.”(중략) 일순 번개처럼 나아말로 위선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스쳤다.<sup>16)</sup>

다른 아이들보다 더럽고 가난한 하루오에 대해 ‘나’는 애정 깊은 선생의 존재로 다가가 “그를 용서하고 가능한 한 그를 연구하고 지도해 나가자”고 결심한다. ‘연구’나 ‘지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는 여전히 야마다 하루오에게 거리 조절을 하고 있다. 결국 ‘조선인’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미나미’에서 ‘선생’으로 전도되어가는 것이다. 조선인을 거부하면서도 갑자기 친밀감을 느끼며

15) 최현식(2003) 「혼혈/혼종과 주체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23, 민족문화사학회, pp.139-164.

16) 앞의 책 13) 金史良(1973) p.14.

“例えば私が朝鮮の人だとすれば、ああいふ子供たちの私に対する気持ちの中には、愛情といふものの外に悪い意味での好奇心といっていかが、とにかく一種別なものが先に立って来ると思うのです。それは先生として先づ寂しいことです。いや寧ろ怖ろしいことに違いない。だからと云って私は自分が朝鮮人だといふことを隠さうとするのではない。ただ皆さんがさういふ風に私を呼んでくれた。又私もさうことさらに自分は朝鮮人だとしゃべり回る必要も認めなかったわけなんです。だが君にさういふ印象を少しでも与えたならば、私はなんとも弁解のしようもないのです。”

(中略) 一瞬間、電光のやうに俺こそ偽善者ではないかといふ考えが閃いたのである。

다가오는 하루오는 아버지 한배의 이미지와 오버랩되어 혐오감은 더 극대화된다. ‘나’의 내면 갈등은 더 심화되고 하루오를 미워할 구체적인 이유는 더 깊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신을 중재자의 위치에 두고 하루오를 지도하고 교화시키자고 마음먹는다. 나약하고 혐오스런 부분을 지닌 하루오라는 소년에게 대해 ‘나’는 ‘선생’이라는 중재인의 존재로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간다. 그 모습은 곧 식민지 지식인의 분열된 자아의 모습이다.

(3c) 물론 나는 순수한 이군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나도 과거에 저런 시기를 보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다음 순간, 자신이 현재는 미나미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 전령(電鈴)처럼 쟁하고 오관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위선자 녀석, 네 놈은 또 위선을 부리려고 하는 게냐” 내 옆에서 하나의 소리가 들렸다. 너도 지금은 근성이 약해져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라서 거기에서 깔보듯 반문했다. 비굴해지지 않겠다.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어째서 나는 이렇게 썩썩거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이 오히려 비굴한 흙탕물에 발을 넣게 된 증거가 아닌가. (중략) 나는 이 땅에서 조선인이라는 것을 의식할 때마다 언제나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다. 확실히 나는 진흙탕과도 같은 연극에 지쳐있다.<sup>17)</sup>

서경식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내가 사로잡혀있는 것은 ‘식민주의’의 ‘계통적인 부정’때문이며 그것은 나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즉 식민주의에 의해 디아스포라가 된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sup>18)</sup>이라고 말한다. 오늘날까지도 재일조선인들이 내면에 안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식민지 말기의 내지에 사는 조선인들에게 있어서는 차마 언급하기도 두려운 화두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텍스트의 서두에서 ‘남’이라는 ‘나’의 존재는 ‘미나미’로 굴절되고 있다. 『빛 속으로』에서 김사량은 그 굴절된

17) 앞의 책 13) 金史良(1973) pp.23-24.

勿論、わたしは純情な李を理解することが出来るなど自分に言った。過去において私自身もさういふ時期をとほってきたからである。自分は現在は南と呼ばれていることがじんと電鈴のやうに五官の中へ鳴り響いてくるのを感じた。偽善者奴、お前は又偽善をはらうと云ふのだな“わたしの傍でひとつの聲が聞こえた。”卑怯になるまい、なるまいとさうして僕はいつもいきまいてゐなければならぬんだ。それが却って卑屈の泥沼に足をつっこみ始めた証拠ではないか。(中略)だから私はこの地で朝鮮人であることを意識する時は、いつも武装してゐなければならぬ。さうだ、確かに私は今自分一人の泥芝居に疲れている。

18) 서경식(2006) 『디아스포라 기행』 돌베개, p.103.

존재인 ‘나’와 하루오의 만남을 통해 서로를 거울처럼 바라보게 한다. ‘나’에 있어서 한베의 존재처럼 끔찍한 존재인 음습한 하루오는 나의 곁을 맴돌며 ‘나’의 존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하루오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의문조차 가지지 않았던 ‘나’는 하루오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 4. 시모후리(霜降り)의 혼혈, 야마다 하루오의 ‘어둠’

야마다 하루오는 다른 아이와 어울리지 않고 혼자 배회하며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존재이다. 사랑이라고는 없는 그의 눈길은 음울하고 회의적이다. 자신은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에게 야마다는 사정없이 폭력적이다. 주로 약한 여자아이들을 괴롭히는데 “조선인 자바레!” 라는 말을 하며 조선인에 대한 반감을 유독 드러낸다. 야마다 하루오의 시선은 이상야릇한 빛을 발하면서 번득인다. 하루오는 다른 아이보다는 더럽고 늦가을인데도 회색의 얇은 시모후리 외투를 입고 있다.

(4a) 야마다 하루오는 다른 아이들 무리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항상 그 주위를 소심하게 맴돌았다. 줄곧 따돌림을 당했지만 뒤에서는 자신도 여자아이나 작은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했다...그는 애정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 또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또한 이 근처 어떤 아이보다도 지저분한 차림새로 이미 가을이 깊었는데도 회색 시모후리를 입고 있었다. 그 때 문인지도 모르지만 그의 시선은 한층 음울하고 회의적으로 보였다.<sup>19)</sup>

시모후리는 검정색과 흰색이 섞인, 서리가 내린 듯한 희끗희끗한 무늬의 옷이다. 시모후리는 하루오가 일본인 아버지와 조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9) 앞의 책 13) 金史良(1973) p.11.

“山田春雄は不思議な子供であった。彼は他の子供たちの仲間にはいらうとはしないので、いつもその傍を臆病さうにうろつき回っていた。始終いぢめられてゐる画、自分でも影では女の子や小さな子供たちを邪魔してゐる。彼は愛しようとしなないし、また愛されることもなかった。そして彼はこの界隈のどの子供よりも、身なりが汚れてゐても秋も深いといふのにまだ灰色のほろほろになった霜降りをつけていた。そのためかもしれないが、彼のまなざしは一層隠逸で懷疑的に見える。”

혼혈임을 나타내는 이미지로 작용한다. 하루오는 오시가미역(押上駅) 뒤쪽 늪지대에서 살고 있다. 하루오의 주거공간은 “물이 괴어있는 진흙바닥” 늪지대이다. ‘늪’은 “빠져 나오기 힘든 상태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곳”이다. 하루오는 불한당인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허우적대는 존재이다. ‘늪’이라는 공간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며 혼자서는 빠져 나올 수 없는 곳이다. 하루오는 폭력적인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조선인 어머니에게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 그의 비뚤 마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에서 시작된다. 정순은 아사쿠사(淺草)의 불한당인 한배가 자신을 조선 요리집에서 구해주었다는 이유로 남편의 폭력을 견디지만 자신의 아들 하루오에게는 거부당하는 존재이다. “아니에요. 조센진, 그 여자는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라고 하루오는 자신의 피와 출생을 부정한다. 정순이 한배에게 칼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어 S협회의 의료부로 실려 오면서 하루오는 서서히 나에게 기댄다. 사건의 발발로 하루오와 ‘나’의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4b) 나는 근처 사람들로부터 고통 받고 배척당한 한 명의 동족 여인을 상상했다. 그리고 내지인의 피와 조선인의 피를 받은 한 소년 안에 조화되지 않은 이원적인 것의 분열이 불러온 비극을 생각했다. ‘아버지 것’에 대한 조건 없는 헌신과 ‘어머니 것’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 그 두 가지가 언제나 상극하고 있는 것이리라.<sup>20)</sup>

‘나’의 주위를 맴도는 하루오에게 ‘빛’은 없다. 음습하고 회의적인 눈길과 사람을 피하는 하루오는 차별받고 배제되어 온 존재이다. 하루오의 아버지 한배가 정순을 폭행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정순이 조선옷을 입은 이군의 어머니의 집에 다닌다는 이유에서이다. 이군은 하루오를 “비겁한 폭군”인 한배와 동일시하여 미워한다. 스스로 내지인이라 생각하지만 하루오는 조선인에게도 내지인에게도 따돌림을 받는다. 하루오의 어둠은 노예 취급을 받고 폭력을 당하는 정순의 어둠이다. 내선일체의 일환으로 축구된 내선결혼으로 태어난 ‘혼혈’이라는 타자는 조선 사회의 편견이 낳은 희생자<sup>21)</sup>이다. 내선결혼은 주로 조선 남성과 일본 여

20) 앞의 책 13) 金史良(1973) p.21.

“私は近所の人々からためつけられ排斥されてゐる一人の同属の婦を想像した。そして内地人の血と朝鮮人の血を享けた一人の少年のなかにおける、調和されない二元的なものの分列の悲劇を考えた。’父のものに対する無條件的な献身と母のものに対する盲目的な拒否、その二つがいつも相克してゐるのであらう。”

성의 문제로 부각되어 왔지만 그 이면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조선여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본 남성의 아내나 노예로 살기를 원한다. 상대방이 식민지인이고 남성일 경우 조선여성은 훨씬 더 억압을 받는다. 정순은 한베의 칼에 찔려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도 하루오를 일본인으로 키우려고 노력한다.

(4c) “하루오는 혼자서도 잘 놀니다. 부디 하루오를 상대하지 말아주세요. 하루오는 내지인입니다. 하루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저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방해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sup>22)</sup>

하루오의 어머니 정순은 한베로 인하여 요릿집에서 풀려났다는 이유로 노예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 하루오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말은 엄마의 자격을 주장하지 못할 만큼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하루오의 비뚤어지고 음울한 모습은 이 부조화의 내선결혼에서 생성된 것이다. 혼혈일본인과 조선인의 피를 함께 물려받은 하루오의 내면에는 ‘아버지의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어머니의 것’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다. 하루오는 어머니와 조선적인 것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착종되어 조선적인 모든 것을 적대시하고 어머니까지 부정하는 황폐한 모습으로 자라난 것이다.

## 5. ‘빛’속으로-화해와 수용

정순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군 등의 조선인들과의 교류를 계속한다. 칼에 찔려 피범벅이 된 그녀가 병원에 입원한 후 이군의 어머니인 노파는 여름밀감 두 개를 꺼내 정순에게 권한다. “여름 밀감이구만, 먹으면 목 갈증이 조금이나마 가실지도 몰라” 처참한 생활에 시달린 정순은 상큼한 밀감으로 건조한 삶의 갈증을 해소한다. 정순의 병실을 찾아온 몰래 찾아온 하루오는 중

21) 윤대석(2013) 「식민지와 식민지인의 세 가지 만남」 『우리말글』 57, 우리말글학회, p.354.

22) 앞의 책 13) 金史良(1973) p.29.

“春雄は一人でもよく遊びます。お願いします、どうかめかけの春雄の相手をしないでくださいませ。春雄は内地人です。春雄はそう思っています。あの子は妾の子ではありません。それを先生が邪魔するのは妾、悪いとおもいます。”

이에 썬 썬 담배를 정순에게 두고 간다.

(5a) “엄마는 피가 나면 늘 썬 담배를 상처에 붙였어요. 저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랬구나. 나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내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검열로 삭제된 부분) 피를 흘리고 그녀는 가엾게도 살담배를 침으로 개서 겹겹이 상처에 붙였던 것임에 틀림이 없다. 마치 그녀와 같은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치료하였듯이.<sup>23)</sup>

‘썬 담배’는 조선인이 쓰던 임시 지혈방법이다. 늘 한베에게 폭력으로 시달렸던 정순은 담배 가루를 침으로 개어 상처에 붙이며 지내왔고 하루오는 옆에서 그것을 보았을 것이지만 한 번도 하루오 쪽에서 어머니를 위해 그런 선처를 한 적은 없었다. 정순은 늘 혼자서 폭력을 참아내고 조선인이라는 티조차도 내지 않으며 하루오의 숨어있는 어머니로 살아왔다. 하루오가 썬 담배를 가져왔다는 것은 지금껏 부정했던 어머니의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텍스트의 초반에서 하루오는 시모후리를 입고 있다. 백화점에서 ‘나’는 하루오를 위해 언더셔츠를 구입한다. 시모후리는 서리가 내린 듯 직물 따위의 무늬가 흰색과 검은 색으로 섞여 희끗희끗하지만 언더셔츠는 대부분 단색이다. 하루오는 어느새 내가 사준 새로운 언더셔츠로 갈아입고는 너털너털한 걸음을 거드랑이에 긴 채 휘파람을 불고 있다. 혼재되고 착종된 하루오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단일한 색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돌아가는 길에 파출소 옆에 있는 체중계에서 나는 하루오에게 몸무게를 재 볼 것을 권한다. ‘체중계’는 몸무게를 재는 물건, 곧 그 존재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루오가 체중계에 올라가자 체중계의 바늘은 하루오의 체중을 싣고 격렬하게 흔들린다. 체중계가 격렬하게 흔들렸다는 것은 비뚤어진 하루오의 자아가 격한 흔들림 끝에 제자리를 잡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처음 이군에게서 미나미가 아니라 조선인이 아니냐고 채근 받는 장면에서 야마다 하루오는 “문이 살짝 열리고 발소리를 죽이

23) 앞의 책 13) 金史良(1973) p.33.

“母ちゃんは血がでたらいつも刻み煙草を傷にはってゐたんだもの。僕ちゃんと知っていたんだもの”  
 成程と私は思わず息をのんだがどうしたことが驚きの色さえ顔にあらはすことは出来なかった。私の目先が急にぼうと霞んできたやうな気持ち立った。(××××× 검열과정에서 삭제됨) 血を流しては彼女は痛がしくも刻み煙草をつばで練っては幾つも幾つも傷口にはりつけてゐたのに違ひなかった。丁度彼女の郷里の百姓達がそんな風にして傷をなおさうとするやうに。”

면서” 들어선다. 곧 하루오의 존재는 무게감이 전혀 없는, 곧 한 존재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하루오의 체중이 생각보다 많이 나갔다는 의미는 하루오가 한 사람의 비중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군은 운전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7년형의 엔진이 튼튼한 자동차 한 대를 몰고 와서 “겨우 한 사람 몫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때 이군이 말하는 ‘한사람 몫’은 이군 뿐 아니라 하루오 역시 ‘한사람 몫’이 된다는 복선이다.

텍스트의 내용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분열된 자아가 정체성을 찾고 타인과 소통을 이루는 것은 몇 가지 소도구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이군의 어머니가 정순의 병실에 가져온 밀감과 하루오가 엄마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온 썬 담배, 그리고 언더셔츠와 파출소 앞의 체중계 등의 소도구이다. 목의 갈증을 가시게 하는 밀감은 황폐한 정순의 마음을 채워주고 조선인의 지혈제로 쓰이는 썬 담배는 어머니의 것을 받아들이는 하루오의 마음을 표현한다. 시모후리를 벗고 내가 사준 단색의 언더셔츠를 입는 하루오의 모습에서 분열된 이중 자화상은 하나로 통일되며 체중계는 지금까지 존재감이 없었던 하루오의 자아의 존재감을 상징한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김사량은 날씨의 변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정순이 한베에게 흉기에 찔려 병원에 실려 왔을 때부터 날씨는 험한 날씨로 바뀌어져 바람이 불고 등나무 시렁 이파리가 심하게 흔들리고 날이 저물 무렵에는 장대비로 바뀌어 갈수록 거세진다. 야마다 하루오가 병원에서 아버지에게 찔려 피투성이가 된 정순을 보고 ‘나’를 찾아온 순간에는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치기 시작한다. 웅크려 잠자는 야마다의 모습에서 유치장에서 ‘나’를 괴롭히던 한베의 모습이 겹쳐지고 그 순간 야마다 하루오가 한베의 아들임을 확신하면서 ‘나’의 마음속에는 하루오에 대한 연민이 생긴다. 그러면서 어느새 휘몰아쳤던 폭풍우는 가라앉고 세상은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간다.

(5b) 지난밤 폭풍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꺾인 가지가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려있었고 비에 씻긴 지면에는 곳곳에 누런 잎들이 떨어져 있었다. 한 무리 비둘기가 벤텐당(麥天堂)지붕과 오층탑 주위를 소란스럽게 날아다녔다. 연못은 거울을 갈아놓은 듯 석양에 반사되어 때때로 반짝반짝 금빛으로 빛났다.<sup>24)</sup>

24) 앞의 책 13) 金史良(1973) p.35.

“昨夜の嵐の跡が残って、折れた枝が落ちかかったり雨に洗はれた地面に所々わくら葉が落ちたりしていた。鳩の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걸린 나뭇가지는 늪에 빠질 듯 불안했던 하루오의 모습을 상징한다. 행복과 지혜를 상징한다는 벤텐신이 있는 지붕위로 비둘기들이 날아다닌다는 풍경에서 억눌려있던 하루오의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거울을 깬 듯 투명하게 빛나는 연못의 이미지는 은폐된 자아가 거짓 없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c) “선생님, 전 선생님 이름을 알아요. 그래? 나는 쪽스러운 듯 웃었다. 남선생님이죠?” 그렇게 말하자마자 하루오는 나의 손에 자신의 옆구리에 끼고 있던 웃옷을 벗어던지고 즐거워하며 돌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나는 겨우 구제받은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넘어지기라도 하듯 그의 뒤를 따라 내려갔다.<sup>25)</sup>

‘미나미’로 불리면서도 적당히 그 이름과 타협하고 있었던 나는 ‘남선생’으로 불리는 순간 갑자기 개운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루오와 ‘나’의 소통뿐 아니라 세상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 어둠은 빛으로 변한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다. 식민지인이면서도 피식민지와 동일시화 될 때의 불편한 우월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미나미’라고 불릴 때 내안에는 스스로 자신이 내지인인 듯한 묘한 자만이 있었고 조선에서 이주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루오는 비뚤어진 우월감을 가졌다. 정순은 한베에게 노예취급을 당하고도 자신이 내지인과 결혼했다는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동경제대생인 나는 동경제대라는 인텔리겐차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조선인임을 잊고 살았다. ‘나’도 ‘정순도’ ‘하루오’도 모두 자신의 주체적인 정체성을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이군과 하루오에 의해 나는 다시 ‘남’으로 호명된다.

대학시절 김사량은 세틀먼트 협회에서 봉사한 바 있다. 김사량의 소설은 거의 김사량의 개인적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볼 때 텍스트에 나타나는 “거짓말, 위선, 비굴”이라는 내면 고백 역시 김사량 개인의 내면적 갈등과 고백임을 알 수 있다.

群が弁天様の屋根屋や五重の塔のまわりをにぎやかに飛び交っていた。灯籠の傍に出ると下の方に茂みの合間を通して不忍池が見渡される。それは鏡をのべたやうに夕日に照り返り時々ざらざらと金色に光ってみえた。”

25) 앞의 책 13) 金史良(1973) p.36.

“先生、僕は先生の名前を知ってるよ。”“さうか、”わたしはれかくしに笑ってみせた。”南(ナン)先生でせう? さういったかと思ふと彼は私の手に自分の脇にかかっていた上服を投げつけて卵嬉々としながら石段をひとり駆け下りていくに立った。私はほっと救われたやうな軽い足取りで倒れさうになりながら、多々彼の後を追うて下りていった。”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쿠타가와 수상 후보작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김사량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각주 7번 참조) “민족적 양심과 민족의 아픔을 통절히 표현하였다”는 심사평에 진실이 아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김사량이 고뇌하며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나중에 커서 무용가가 되고 싶다는 하루오에게 자신 역시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한 ‘나’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춤을 추고 싶어 한다.

(5d) 내 눈앞에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상처입고 비뚤어진 한 소년이 무대 위에서 다리를 뻗고 팔을 펴서 쏟아지는 빨강과 파란색의 다양한 빛을 뿜으면서 온 힘을 다해 계속 춤을 추는 이미지가 아른거렸다. 내 전신에서 생생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오는 것을 느꼈다.<sup>26)</sup>

‘춤’은 자유로움의 표현이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중 언어의 장치에서 두 개의 이름으로 호명되는 ‘나’와 혼혈아인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야마다 하루오는 굴레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한다. 식민지 지식인 김사량은 해방과 자유를 ‘춤’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하여 억압의 사슬을 풀어 마음껏 표현하기를 갈구한다. 빨강과 파란 빛의 향연은 비록 어둠 속에 존재하지만 빛을 뿜어내 자신을 표현하고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을 향해 춤을 추며 나아가는 김사량의 이상관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김사량은 다른 방식을 통하여 자유를 회구하는 식민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를 호소하는 다른 활로를 김사량은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 6. 나가기

『빛 속으로』는 아쿠타가와 상 수상 후보작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만큼 일본문단의 각광을 받고 일본문단에서의 김사량의 위치를 확고하게 굳힌 작품이

26) 앞의 책 13) 金史良(1973) p.35.

“私の目の前には、この異常な生まれをもつ、傷めつけられ歪められて来た一人の少年が舞台の上で 足を張り腕をのばして渡り合ふ赤や青の様々な光を追ひながら、光の中に踊りまぐる像がちらついて見えるた。私の全身は瑞々しい喜びと感激にあふれてくるのを感じた。”

지만 ‘민족성’이라는 포커스에 맞춰보자면 다소 유약하고 주눅이 든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혼혈인 하루오의 존재가 없었다면 동경 제대의 유학생인 ‘나’는 익명의 인텔리겐차로 묻혀버릴 수도 있었다. ‘나’는 ‘미나미’와 ‘남’이라는 두 이름 사이에서 ‘미나미’라는 호명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면의 갈등을 느끼지만 스스로 거기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 세틀먼트의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나’에게는 더 합리적인 이유로 작용한다. 그러나 어렵고 음습한 혼혈 하루오를 통해 나는 조선인의 존재로 소환된다. 아쿠타가와상 심사평에서 “민족의 비통한 운명을 풍부하게 짜 넣은 작품”이라고 한 사토 하루오의 말은 김사량의 내면양심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게끔 하는 계기는 되지만 텍스트 속에서의 ‘나’의 태도를 볼 때 비장한 민족성은 다소 희박하다. 스물다섯 살의 김사량의 문학적 한계는 태평양 전쟁을 향해 치달으며 조선인의 ‘황민화’와 창시개명을 강요하는 시대에서 더 이상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아쿠타가와 상 수상소식을 듣고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것은 김사량이 『빛 속으로』에서의 당당하지 못한 ‘나’와 작가 자신의 이미지가 어두운 이미지와 겹쳐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에게 쓴 편지」에서는 그런 김사량의 다소 불편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본고가 『빛 속으로』에서 초점을 맞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내지에서 사는 식민지 지식인인 주인공 ‘나’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며 동시에 일본 내지의 지식인에게 조선인의 현실 상황을 완곡하게 고발하는 작품이다. 분열된 의식, 상실된 자아 안에서 어두운 부분에 대비되는 빛을 추구하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린 하루오의 ‘혼종성’은 수용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김사량은 『빛 속으로』에서 ‘남’과 ‘미나미’로 분열된 ‘나’와, 아버지의 것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어머니의 것을 부정하는 하루오의 균열된 이중성을 표현하면서 ‘내선결혼’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점과 창시개명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민중의 비참한 삶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김사량의 처녀작인 『토성량』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민족관에 비교해 볼 때 『빛 속으로』는 일본 문단의 시선을 의식한 다소 부조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일본 제국이 시행한 창시개명과 내선일체의 강압이 당시 작가들의 표현의 장벽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내지의 식민지 지식인으로 살아가면서 김사량이 느꼈던 위선과 비굴함을 그는 소설을 통하여 포현하고 있다. 정순

의 병실을 처음 찾아간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 ‘남’이라고 밝힌다. ‘미나미’로 호명되던 ‘나’는 비로소 ‘남’으로 재 호명 되고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시모후리를 입고 뉘에서 살던 하루오는 미나미가 아닌 ‘남’인 ‘나’에 의해 구원받게 된다. 소설의 후반부의 “나는 구원받은 듯” 이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당사자가 하루오가 아니라 마치 ‘나’가 오히려 구원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하루오가 찾아야 할 정체성의 무게보다는 ‘나’가 되찾아야 할 정체성의 무게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둠 속에 있던 ‘나’와 하루오는 점점 빛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러한 화해와 화합을 보여주는 몇 가지의 소도구가 있는데 밀감, 언더셔츠, 체중계, 썸 담배, 등이 그런 예이다. 이 몇 가지 소도구는 건조한 삶의 갈증을 적시고 시모후리의 혼종된 존재를 단일화시키며 존재감의 무게를 드러내고 썸 담배로 조선의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는 작용을 한다.

또한 텍스트는 사건과 갈등을 어둠에서 빛으로 배치하면서 거칠게 비가 내리는 날씨를 비에 씻긴 지면과 비둘기, 금빛으로 빛나는 연못을 묘사하여 갈등과 절정을 따뜻하고 차분하게 묘사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규명과 민족적 화해가 『빛 속으로』에는 그려져 있다. 언제나 명암 속을 유영하며 긍정과 부정 사이를 누비면서 어슴푸레한 빛이라도 구하려고 발버둥 치던 김사량은 『빛 속으로』에서 하루오와의 화해를 통해 빛과 희망을 찾는다.

『빛 속으로』는 민족작가 김사량이 어둠에서 벗어나려는 고뇌의 흔적이 엿보이는 동시에 식민지 조선인의 희망을 담은 소설이다.

## 【참고문헌】

- 김재용(2004) 『협력과 저항』 소명, p.201.  
 김지영(2013) 「제국과 식민지/일상에서의 혼종」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1집, 한국현대문학회, p.323.  
 미즈노 나오키·정선태 역(2002) 『창세기명』 산치림, pp.262-263.  
 서경식(2006) 『디아스포라 기행』 돌베개, p.103.  
 윤대석(2013) 「식민지와 식민지인의 세 가지 만남」 『우리말글』 57, 우리말글학회, p.354.  
 천정환 외(2010) 『식민지 근대의 뜨거운 만화경』 성균관대 출판부, p.415.  
 최현식(2003) 「혼혈/혼종과 주체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23, 민족문학사연구소, pp.139-164.  
 金史良(1973) 『金史良全集Ⅳ 「小説集跋文」』 河出書房新社, p.6.  
 \_\_\_\_\_(1973) 『金史良全集Ⅳ 「朝鮮文化通信」』 河出書房新社, p.29.  
 \_\_\_\_\_(1973) 『金史良全集Ⅳ 「母への手紙」』 河出書房新社, p.104.

- \_\_\_\_\_ (1973) 『金史良全集 I 「光の中に」』 河出書房新社, p.11, pp.13-14, p.14, p.21, pp.23-24, p.29, p.33, p.35, p.36.
- 朴銀姬(2008) 「主体性の追求と挫折—金史良の「光の中に」をめぐって」 『人文社会科学研究』 第 17号, 千葉大学大学院人文社会科学研究所, p.318.
- 安宇植(1972) 『評伝金史良』, 岩波新書, p.97.
- 磯貝治良(1978) 「始原の光(上)」 『新日本文学』 新日本文学会, p.80.
- 베네딕트 앤더슨·윤향숙 역(2002)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p.99, 재인용

논문 투고 일자 : 2016.03.29.

논문 심사 일자 : 2016.04.18.

게재 확정 일자 : 2016.04.28.

<要旨>

金史良の小説の中に現れる‘光と闇’  
- 「光の中に」を中心に-

金宝愛

金史良は「光の中に」が1940年芥川賞候補作になることで日本文壇の注目を浴びた。朝鮮の留学生である「私」は朝鮮の呼び方「南(ナン)」と日本の呼び方、「南(ミナミ)」の間で不自由に生きており、日本人と朝鮮人の間に生まれた合の子、山田春雄は自分自身の存在を否定する。二人は暗いイメージで設定されていて「私は誰だろうか」という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問題で迷っている。金史良はこの二人を朝鮮人の李君を通じて自分の問題を直面させてその闇の中から抜け出して光のなかへ連れ出す。本稿は金史良の「光の中に」を通じて闇から光のほうへ進んでゆく部分を分析しその過程を描くための小道具である蜜柑、シャツ、体重計、煙草、自然背景などについて分析した。

‘Light and Darkness’ in Kim Saryang’s Novel  
- Focus on 『Into the light』 -

Kim Bo-Ae

Kim, Saryang’s initial novel, 『Into the Light』, received attention from the Japanese literary world, as it had been nominated for an Akudakawa award. ‘Nam(南)’, a Joseon student in Japan, written about in the first person was, not liberated from name calling of Minami(南), and Yamada Haruo(山田 春雄), They concealed his identity between mixed blood, having a Japanese father and Korean mother, and both were wondering due to their problems of finding themselves. ‘who am I’. The image of two people, who could not escape from their identity problem, was created in ‘darkness’, however Kim Saryang let them reach the light by escaping from darkness through facing their problem through a ‘Yigun’. This research analyzed the space between the lines of the text that goes towar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through Kim, saryang’s 『Into the light』 and analyzed mandarine, a shirt, scale, cigarette, and the natural background, etc. as the props of reconciliation.